

여성신문 신년호 새해덕담

박영숙 한국여성재단이사장

정해년은 600년만의 '황금폐지해'라고 출산을 부추기는 등 긍정적인 사회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희망적이다.

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활기찬 행진의 기수로서 앞장서온 여성신문이 새해 한 해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는 '빈곤의 여성화'해소노력이라고 생각한다.

호주제 폐지 이후의 여성문제의 우선과제는 경제적 평등이다. 경제적 성별불균형의 벽을 유지하는 한 여성이 경쟁력이 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시대에 부응할 수 없다.

정해년을 여성의 경제적 자기 몫 찾는 해로 자리매김하자.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?